

정부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 늘자 예산 '0원' 편성

시행 1년 만에 가입 100만여 세대...231GWh 에너지 절약 한전, 지난해 정부지원 부족에 초과 예산 78억원 자체 부담

정부가 소비자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절약 하면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전력소비자를 참여도를 감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하면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캐시백 사업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1년 새 사업 가입자는 5배 이상 늘어났지만, 올해부터 사업비는 모두 한전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기존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되던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는 모두 한전의 전기요금 구성하는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하게 됐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절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직전 2개월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감축할 시 절감률에 따라 kWh 당 30-10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만여 세대에서 현재 100만여 세대 수준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 증가로 지난해 절약된 전기도 231GWh에 달한다. 이는 95만 가구가 1달간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전이 지난해 에

너지 캐시백 조건을 충족한 세대에 지급한 금액도 104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 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25억 6000만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라 한전은 자체 예산으로 초과 사업비 78억 4000만원을 떠안았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인기에도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기존 예산마저 중단했다.

전력소비자들 호응이 커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한전은 정부 지원액을 고스란히 떠안고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전 측은 또 올해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최근 약관 개정으로 통해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반영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 석탄 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kWh당 9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한전의 경우 연결기준 누적적자 43조원, 부채 202조원에 달하는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집중호우 피해 점검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해남군 황산면 관촌저수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21일 전남지역에 평균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시설물 점검 및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정부, 벼멸구 피해 2만6000ha 벼 전량 수매

저품질 쌀 유통 예방 등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농작물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따른 농민 반발과 손실을 우려, 피해 입은 벼 물량을 모두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충

인 벼멸구 확산으로 손상된 올해 벼를 전량 수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전국 벼멸구 발생 면적은 지난 22일 기준 2만 6000ha(헥타르·1ha는 1만㎡)로, 축구장(0.714ha) 3만 6000개 규모보다 넓다. 벼멸구로 인한 피해 면적이 2만ha를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전남의 경우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면적이 지난 22일 기준 1만 9603ha에 달할 정도다.

전남도는 평년 피해 면적(3876ha)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일수(23.1일)가 평년보다 16일이나 길고 평균기온(28.5도)도 평년보다 2.2도가 높은 점 등을 들어 지속적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최근 건의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이후 농업인이 벼멸구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자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물량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KISA, KT와 불법스팸 근절 나선다

스팸 신고 데이터 분석...문자 중계사에 블랙리스트 공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팸 등을 통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 차단 강화한다.

KISA는 24일 KT와 서울시 송파구 KT 사옥에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팸 차단 강화를 위한 것으로, 양사 간 협력과 AI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스팸 블랙리스트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KISA는 그동안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다수·중복 신고된 블랙리스트 전화번호를 전체 문자중계사에 공유,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대량 문자들을 차단해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스팸 블랙리스트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악성 웹사이트 주소 여부 및 문맥 분석 등을 통해 스팸 차단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ISA가 스팸 신고 데이터를 KT에 제공하면, KT의 AI 기술로 추출한 스팸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전체 문자중계사에 제공한다. 또 KT 역시 KISA의 스팸 신고 데이터를 바탕



으로 스팸 관련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집합인 'AI클린메시징' 기술을 통해 분석·추출한 스팸 전화번호를 KISA에 제공하게 되며,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안전화합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팸 차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KISA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스팸 대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정보진흥원, 27일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2024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Web Animation Festival·WAF)'이 오는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개최된다.

GICON은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우수 창작자 발굴 및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WAF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WAF는 20주년을 맞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내 메인무대에서 넷플릭스 인기 방영작 '지금 우리 학교는'의 원작자인 주동근 웹툰작가와 극장판 '유미의 세포들', 영화 'UP' 제작에 참여한 정광조 애니메이션이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강연에 이어 우수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한 '제

20회 웹툰·애니메이션 창작자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된다. 시상은 웹툰과 애니메이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총 12작품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광주광역시장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애니메이션 업계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진행되는 '제4회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어워드'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애니메이션상 등 7개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는 국내 콘텐츠 해외까지 널리 알린 작품을 위한 해외수상작도 신설해 수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GICON 홈페이지 내 WAF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정부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됐다.

aT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을 획득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 중심의 채용과 인사 관리를 비롯해 직원 역량 개발에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특히 aT는 올해 인증 평가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 코칭 강화 ▲역량 모델에 따른 교육체계 수립 등 직원의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 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